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일전에 한 전람회장을 찾았다가 적잖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입구에서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제도 시행에 따라 QR 코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신분증 제시 정도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깜박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도리 없이 꽤 떨어진 주차장에 다시 다녀오는 수고를 했다.

나 아닌 다른 물건이 나를 대신 증명해주는 세상. 다만 전람회장 출입구에서 나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만들어준 QR 코드의 의미가 그 순간에는 잘 와닿지 않았다. 그것을 만들어 제시하고 스캔에 응해야 전람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냥 그 요청에 순응했을 뿐이었다. 그 코드 속에 뭘 담아준 것인지 그 당시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

QR 코드는 상형문자 집합 같기도 한 네모난 모양의 마크다. QR 은 'Quick Response'의 약자다. 이 코드를 통해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바코드보다 꽤 많은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단다. 코로나 19 확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사람의 신상과 방문 정보가 이 코드에 담겨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고 한다.

이제는 기특하게도 나 대신 나를 증명해 세상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로 자라났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사회안전망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까지 도맡게 됐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대행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손가락 몇 번 두드리면 필요한 물건을 현관 앞까지 가져다주는 장보기 대행과 택배는 이제 필수 아이템이다. 음주측정기가 경찰에 보급되면서 시작된 대리운전은 40년 역사를 자랑한다.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늘어나고 외출을 꺼리면서 대면하거나 귀찮은 일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대행서비스인데, 일본에선 몇 년 전부터 퇴직대행도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조언하고 회사와의 연락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다. 요금은 3만~5만엔. 사표를 내면 간단히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데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갑질 상사의 공포가 심해 퇴직 얘기를 못 꺼내거나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퇴직을 안 시켜 주는 경우, 회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퇴직을 미루는 사례 등이다. 그래서 회사와 퇴직 희망자의 중간에 서서 대행업자가 퇴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이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별초 대행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묘 대행도 성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상님께 대신 절을 올리는 서비스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대행의 끝은 어디인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1997 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이른바 '아나바다 운동'이 인기를 끌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를 줄인 말로,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고자 벌인 절약 캠페인이었다. 중고 거래와 소규모 벼룩시장의 사회화는 그렇게 조금씩 몸집을 키워 갔다. 20 여 년이 지난 지금, 중고 거래 앱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얼마 전 나이키가 '한정판 모델'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팔았다. 오전 10 시부터 딱 30 분 동안만 구매 신청을 받고 11 시 추첨, 이후 두 시간 동안만 당첨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몇 족을 파는지, 몇 명이 당첨됐는지 모두 비공개였다. 15 만 원짜리 운동화가 25 만 원 안팎의 가격이 붙어 올라왔다. 이른바 '스니커테크'라고 하는 한정판 운동화 되팔기다.

이게 뭐냐 싶겠지만 모르는 말씀이다. 국내 스니커즈 되팔기 시장 규모는 연 5000 억 원으로 추산된다. 네이버가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 한정판 모델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고, 1 년 남짓 만에 누적 거래액이 2700 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나만의 개성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가치 추구가 기업의 교묘한 마케팅과 만나 특이한 중고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생활과 산업 형태의 진화야 끝이 없겠지만 자본 상술이 너무 깊숙이 끼어들어 좀 찻찻한 느낌이 든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지난 몇 년 동안 끓어오르던 세계 지정학적 긴장감이 2022 년이 되자 본격적인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전략은 유라시아대륙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는 러시아의 세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에 뻗어있는 '대서양주의' 세력이다. 대서양주의는 서구 근대문명,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을 상징한다. 반대편에는 러시아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주의' 세력이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문명의 오랜 전통, 집단주의, 권위주의를 지키고 있는 육상 세력들이 대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서유럽은 대서양과 유라시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다.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는 '다시 갈라지는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서는 지정학적 선택을 둘러싼 논쟁이 세대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노년층은 세계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원래 갈라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장년층은 두 세계의 갈라짐을 가장 우려하는 세대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권자 집단으로 본격 등장한 이 땅의 청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드러난 것만 보자면 이들의 인식은 중장년층보다는 노년층과 더 친연성을 갖는 듯하다. 세대 간의 이러한 인식 격차는 2022 년 대통령선거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한류는 이제 의식주 등 한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며 '글로벌 K 컬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 단계 높은 '선진문화대국'으로 도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지역문화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AI, 데이터, 로봇산업 등으로 종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문명사적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세계화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왕에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초일류 선진문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류 문명사에 큰 빛을 남기는 나라가 되려면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는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외래문화 유입과 영향,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우리 지역문화의 위상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지역경제에 따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대도시가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과 문화를 즐길 수 없게 된 지역은 소멸위기에 몰렸으며, 지역문화와도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향토문화의 복원과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문화향유자들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문화는 민족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와 직접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〇〇は選挙に勝つためにイランと戦争を始めるだろう」。〇〇とは誰で、これをツイートしたのは誰だろう。2011年、オバマ前米大統領を名指ししてそうつぶやいたのはトランプ現大統領その人だった。

その後イランと核合意を結んだオバマ氏にはとんだいいがかりだが、世は一転して今や〇〇はお前だろうと目されるはめになったトランプ氏だ。イランで英雄視される革命防衛隊の部隊司令官を殺害、あわや戦争の緊張をもたらした。

暗殺されたのは中東での工作活動を指揮した人物だが、報復を求める国内世論を無視できぬイランの現体制である。一方、トランプ氏は報復があれば52カ所に軍事攻撃を行うと威嚇、紛争のエスカレートをためらわぬ構えを見せた。

だがトランプ氏といえば、従来の米国の中東介入政策を「ばかげた終わりのない戦争」と批判して支持を集め、イランへの軍事攻撃もくり返し否定していた。今回の暗殺も極端な選択肢だけに当初は自らの選択から除外していたとか。

それが変わったのはイラクの米大使館が親イラン派に襲撃されるテレビ映像にショックを受けたためだという。もし世界を揺るがす決断が居間のソファのテレビ視聴者並みに気ままになされていたなら、こちらこそ大ショックである。

ディールの達人を自任するトランプ氏だが、ことは損得のかけひきで制御できぬ危機のエスカレーションだ。国際秩序の危うい均衡を平気で次々に壊していく最強のテレビ視聴者の恐ろしさである。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昨今の半導体不足に「ブラジルでチョウが羽ばたけば、テキサスで竜巻が起こる」というバタフライ効果や「風が吹けばおけ屋がもうかる」という言葉を思い浮かべる。

まず米中対立がある。米国の輸出規制の対象となった華為技術(ファーウェイ)などの中国企業が対策として半導体の在庫を積み増した。コロナ禍の影響も大きい。巣ごもり消費でゲーム機や家電の売り上げが伸び、世界的に半導体需要が増えている。

思わぬ事故も続いた。昨秋には宮崎県の旭化成、3月には茨城県のルネサスの半導体工場が相次いで火災が起きた。天候も災いした。2月に米テキサス州で猛威を振るった寒波でサムスンなどの半導体工場が一時操業停止に追い込まれた。

深刻なのは、世界有数の半導体生産基地となった台湾で続く干ばつだ。台湾最大の湖では湖底の一部が露出した。産業用水を供給するダムも似た状況だ。半導体生産には大量の水が必要になる。台湾当局は井戸の増設など水源確保に懸命だ。受託生産で世界トップの台湾積体回路製造(TSMC)など企業側も節水対策を進めているという。

産業のコメといわれる半導体が不足しては、コロナ禍を乗り越っても経済回復の足を引っ張られる。制御不能なカオス状態を生まぬためにも、国際協調で半導体不足を解消する知恵が出せないものか。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ウィリアム・テルの逸話のようにリンゴを頭に乘せた男に周囲から矢が放たれた。全身に矢を受けた男は平然と頭からリンゴを取り、かじりつく。そこにナレーション。「毎日1個のリンゴがあれば、誰も私をだませない」。

香港の「蘋果日報(りんご日報)」が1995年の創刊時に製作したテレビCMだ。自ら出演した創業者の反骨精神が表れている。雨傘運動や反中デモでは民主派支持の紙面を作り、中国と対立してきた。

香港の民主主義のリトマス紙ともいわれた同紙が24日付を最後に発行を停止した。昨年6月の香港国家安全維持法施行後に創業者や経営陣、編集幹部が逮捕された。法人の資産も凍結され、経営が困難な状況に追い込まれた。

軍事独裁体制を敷いたナポレオンは「敵対的な新聞は銃弾より危険だ」という言葉を残した。中国も同じ考えに違いない。「党のノドと舌」と位置づけられた中国メディアと異なり、同紙は共産党批判をためらわない危険な存在なのだ。

論調が異なる新聞や雑誌が並んだ街頭の新聞スタンドは、英植民地時代から続く香港の名物だった。それが一色に染まっては「1国2制度」などまやかしにすぎない。

廃刊を惜しむ市民は雨の中、同紙の社屋周辺に集まった。弾圧によって「だまされまい」と自由な言論を求める人たちの信念を消し去ることはできな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気候変動は現代の危機を決定づけており、私たちが恐れていた以上の速さで進んでいます。しかし、私たちはこの地球規模の脅威に対し、決して無力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地球上に、気候変動の壊滅的影響から無傷でいられる場所はありません。気温の上昇は環境破壊や自然災害、異常気象、食料不安と水不足、経済の混乱、紛争やテロを助長しています。海面は上昇を続け、北極氷原は融解し、サンゴ礁は死滅へ向かい、海洋の酸性化が進み、森林は山火事で失われています。

何十億トンもの CO2 が毎年、石炭や石油、ガスの生産により、大気中に放出されています。人間の活動は、記録的な水準の温室効果ガス排出をもたらしており、その勢いはまったく衰える兆しを見せていません。

科学は私たちに、気候変動を疑う余地はないことだけでなく、その流れを断ち切るのも手遅れではないことを教えてくれます。

技術は気候変動を助長してきたものの、新たな効率的技術は、正味の排出量を減らし、世界を浄化することに役立つ可能性があります。現在の排出量の 70%以上について、簡単に利用できる技術的解決策が存在します。

これら拡張可能な解決策を採用すれば、私たち全員がよりクリーンで強靱な世界へと一足飛びで転換を遂げることができます。政府や企業、市民社会、若者、学界が力を合わせれば、苦痛を和らげ、正義が守られ、人間と地球を調和を取り戻す、環境に優しい未来をつくることのできるのです。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에너지의供給不安と価格高騰が世界經濟を圧迫している。見過ごせないのは財政や消費者負担に限界がある新興国や途上国への影響だ。

에너지危機の長期化が、世界の分断を広げかねないことに警戒が必要だ。

英国はエネルギー価格高騰で影響を受ける家計への支援策を発表した。標準世帯が払う電気・ガス代金を2年間固定する。英メディアによれば、そのために1500億ポンドの財政支出が必要になるという。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の長期化に伴い、欧州では天然ガスの記録的な高値が続く。

米国でも急速な物価上昇に直面し、日本も高騰への対応は急務だ。

同時に新興国・途上国へ目を向け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パキスタンやバングラデシュでは発電燃料となる液化天然ガス(LNG)の高騰により、予定量の調達が難しくなり、停電時間が拡大している。外貨準備も潤沢でなく、両国は国際通貨基金(IMF)へ融資を求めた。

電力などのインフラが脆弱な途上国では、エネルギー負担の増大による国民生活の圧迫は、社会不安につながりかねない。

日米欧はロシアに厳しく臨むためにも、ロシアや中国との間にいる多くの国々をつなぎ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途上国の石油・ガス調達の支援など、供給安定策で日米欧が連携を深める必要がある。エネルギー危機の影響を最小化する取り組みが欠かせない。